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레볼루션 그 너머의 세상으로' 주제관 전시



# 인간과 기계, 과거와 현재 경계를 허물다

61일간의 항해를 시작한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올해는 '디-레볼루션'을 주제로 인간과 기계, 과거와 현재 등 경계를 허물고 다양하게 소통하는 디자인혁명의 면면을 5개의 전시관을 통해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곳은 '주제관'이다.



자연으로부터 모티브...공감각적 경험 선사  
뮤직비디오·미디어아트서 찾는 '디자인혁명'  
코로나 팬데믹 속 자유·평화 염원메시지도



이안작 'DNA 산수'(위)  
디뮤지엄 x 윈다 바르셀로나작 'From Color to Eternity'(아래)

김현선 총감독이 큐레이팅을 맡아 정보(Da-ta), 차원(Dimension), 일상(Day), 행위(Do-ing), 표현(Description) 등 5가지 키워드를 토대로 꾸며졌다. 이 관에서는 세상에 화두를 던지면서,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내재된 감성을 극대화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동나무꽃, 이팝나무, 식물극장 등 자연에서 얻은 모티브

먼저, 자연을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띈다. 전시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종이꽃의 향연이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서막을 알린다.

'프롬 컬러 투 이터니티' 작품은 수 천 개의 등나무 꽃송이를 형형색색의 종이로 표현했다. 백색에서 시작해 화려한 색으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연출했다. 마치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으로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디뮤지엄과 윈다 바르셀로나의 손에서 피어난 이번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이를 공감각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선사한다.

투윌미가 기획한 '오월 빛고을 향기'는 광주의 정체성을 향으로 구현해냈다.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변해도, 그 때 그 자리를 오롯이 지켜온 이팝나무에서 착안했다. 그 향을 포집하고 여기에 순백의 빛을 더해 빛고을 광주만의 정체성을 후각적으로 재탄생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경진, 나까지마 주리 작가가 협업해 만든 '식물극장'도 특별하다. 미래 정원의 다양한 양상을 그려낸 이번 작품은 총 3가지의 주제를 지니고 있다. 먼저 식물 디자인이 주인공이 되는 서사를 영상으로 풀어냈다. 두번째로 식물을 재배하고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탄소제로를 향한 길을 보여준다. 마지막 주제는 식물도서로 정원을 꿈꾸고 만드는 과정을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었다. 개인의 욕망과 취향이 담긴 정원을 디자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디자인이 보여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뮤직비디오·DNA산수로 보여주는 디자인혁명  
K-POP의 성공 속에도 디자인혁명이 존재할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뮤직비디오에서 그 답을 찾았다. BTS의 뮤직비디오 연출을 맡았던 김준홍 감독의 작품 'XTRA'는 명사 앞에 붙어 그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뜻이다. 화려한 이미지로 아티스트와 음악을 돋보이게 하는 뮤직비디오를 디자인혁명으로 보고 있다. 메타버스와 사이버 펑크한 이미지를 녹여 관객이 K-POP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환상을 준다.

한국 미디어아트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린 이안 작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DNA 산수'는 사공도의 이십사시종 중 옹혼과 총담을 소재로 음악의 조화, 동양 미학의 정신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자신의 DNA를 텍스트로 표현해 소멸되는 산수를 따라가며, 역사와 생명의 흐름 속에서 나의 뿌리와 본질을 찾아간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한선주 작가의 '불날은 온다 I'은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직조적인 형태와 형광에 가까운 핑크색 실을 이용해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작가는 40년간 단 한 번도 핑크색을 사용하지 않았다. 편견적으로 심하게 여성스럽다고 느껴진다. 이유에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원초적 색감의 핑크 실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불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전한다.

최근 업사이클링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김하늘 작가의 작품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택 앤 스택(Stack and Stack)'은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회용 폐마스크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김현선 총감독은 "디자인혁명의 근간은 자유"라며 "과학도 미처 치료하지 못한 내면의 상처들을 디자인을 통해 위로 받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또 한 번의 혁명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레볼루션 그 너머'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관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 새롭게 해석된 추상적 한글의 조형미

윤병학 작가 '한글자모의 변형과 조형성'展...31일까지 광주문화회관

"언어기호는 보이지 않는 소리, 즉 신호체계로서의 언어를 의미한다. 소리의 수단으로서 매개이며 기호이자 신호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회화로 표현한 제22회 윤병학 개인전 'sign language 한글자모의 변형과 조형성'이 오는 31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지원 공모전으로 마련됐다.

한글의 조형적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를 부각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분해,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해석된 추상적인 한글의 조형미를 선보인다.

한글의 형태, 구조 등 문자적 아름다움과 자모의 연속적인 변화로 리듬과 율동을 표현한 회화 25점으로 구성됐다.

또 각종 기호들이 한글과 결합되면서 생기는 질서와 조화를 화면에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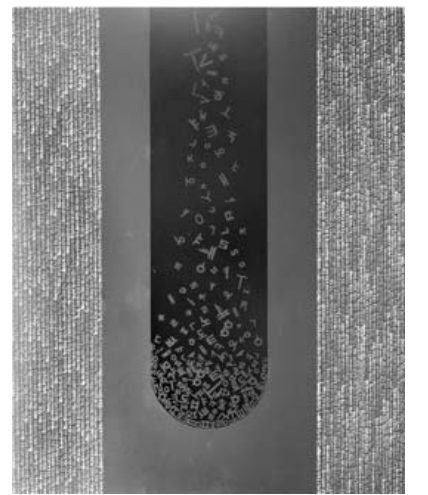
윤 작가는 언어적 소통을 통해 양극화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한다.

아울러 시공에서 일어나는 현대사회의 단면과 일상적 다양성에 대한 실상을 끄집어내 현대인의 도덕적 보편성을 향한 치유적 카타르시스를 추구한다.

이것은 현대인의 삶과 혼재된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황폐해져가는 자신의 감성을 치유하듯 일종의 자가 치방전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한글자모나 기호적 요소들은 문화변종 시대의 일상적 현상, 또는 현실에 대한 이성적 감성적 상태, 가상공간의 표상을 드러낸다. 그것은 곧 우리사회의 혼재된 양상, 혼돈의 역사를 포괄한다.

작가는 한글이 가지는 한국성과 추상적 조형성을 통해 조화를 유도하며 자모의 균형과 연속성의 변화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각종 기호들이 모여면서 규칙적인 질



서와 조화를 유지하며 화면의 균제적 아름다움의 변형적 조형공간을 만들어낸다.

표현의 영역에 있어서 내용적 밀바탕을 이루는 본질적 의도성을 강조하며 문화적 동질성과 한국성을 보여준다. 동양적 여백의 미를 살리는 시공간적 현대성 또한 강화한다.

윤 작가는 혼재된 현대사회 속에서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순수성을 찾고자 일기를 쓰듯이 기록을 남긴다.

이렇듯 오감을 포함한 감각을 통해 내적인 의식의 경험세계와 무질서한 공간속에 현대인의 존재성과 정체성의 가치를 담아내며 반복된 생활 속에 현대인들의 고독한 여정을 치유하듯 담담하게 새기고 있다.

윤 작가는 전남대학교 미술학사, 미술학석·박사를 졸업했다. 미국 뉴욕 등에서 21차례의 개인전을, 국제전 및 국내단체전에서 300여 차례의 전시회를 열었다.

현재는 (사)대한민국남부현대미술협회 광주지회장, Mise-en scene Art center 대표,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강사, 한국문화예술포럼 이사, 한국예술종합교육원 전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최명진 기자

## 비상무용단 창작초연 '다시, 봄의 제전'

15-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비상무용단이 2021년 창작신작 '다시, 봄의 제전'을 15일 오후 7시30분, 16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선보인다.

'다시, 봄의 제전'은 지난 1년 간 코로나 팬데믹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다음 시대 만개하는 봄을 찬양하는 창작공연이다.

공간과 무대는 작품 특성에 맞게 밝고 희망찬 봄의 느낌으로 구성됐다. 공간, 소품과 의상 등 디자인에 일관된 톤을 부여하면서 미디어아트가 함께 해 작품의 멋스러움을 더한다.

박종임 비상무용단 예술감독은 "위드 코로나 시대 춤과 예술로 새로운 시대가 가져올 빛나는 감각을 관객들과 즐겁게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비상무용단은 지난 2007년 창단한 단체로



서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공연을 제작하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현대무용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제28회 전국무용제에서 '펜로즈의 시계'로 대통령상, 최우수연기상, 무대예술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량으로 평가받은 무용단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 좌석 거리두기로 266석에 대해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관람료는 무료. /최명진 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